

# “북한에 사랑의 돼지 천사(1004)마리 보낸다”

-한국교회평신도협의회 이우호 회장(본회 회원) 적극 추진



이우호 회장  
(한국교회평신도협의회)

**한**국교회 개신교 32개교 평신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는 금년 추석(10월 5일)을 전후해 사랑의 돼지 1,004마리를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 한국교회평신도협의회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 이같이 결의하고 범교단적 차원에서 이 운동에 참여해 주길 호소했다.

한국교회평신도협의회 관계자는 “기독교인으로서 북한교회 재건과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일조하고자 북한동포 돕기운동 추진의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전했다. 또한 “돼지 보내기 운동이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수량을 1004마리로 정했다”고 밝혔다.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5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회원별 각출 및 범교계 차원에서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모금구좌는 한 구좌당 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돼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한 전달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 1004마리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운동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한국교회평신도협의회 이우호 회장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에서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는 본회 회원이기도 하다.

본회는 북한에 돼지 보내기 운동이 성사될 경우 남북한간의 양돈업 교류와 북한에 종돈업 및 양돈업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고, 극심한 양돈불황도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본회는 돼지 1,004마리 보내기 운동을 적극 후원하기로 하고 모금 및 돼지 구입, 검역, 홍보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 돼지 보내기 운동에 관심이 있거나 동참할 의사가 있는 회원은 본회로 연락하기 바란다. **養豚**